

[성경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언어사용법 7]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김완일 목사 / 1994

성경공부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경적 언어는 기쁨의 말이어야 한다. 말씀 가운데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참석자들이 느낄 수 있을 때 효과적이다. 인도자 자신의 내면의 기쁨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이 들을 때 기쁨이 되는 말을 선택해야 한다.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적인 말은 성경적 언어로는 반드시 피해야 할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언어는 절제된 언어이다. 인도자는 불쾌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논쟁을 야기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성경공부에 참석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다. 참석자들은 세상의 논쟁에 대해 인도자가 시비를 가려줄 것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다. 위로의 말씀을 들으려 왔으며,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인도자는 세상의 재판관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성경공부 인도자는 성도의 실존적 문제와 삶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성경공부는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진리의 구체화이다. 이러한 작업은 진리인 말씀과 성도를 연결하는 인도자의 사명이요 특권이다. 따라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소식 곧 복된 소식은 기쁨의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인간은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없이 자신을 해방할 수 없다.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악순환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함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자유를 갖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마음의 기쁨을 갖는 일이다. 「3Y현상」이라고 부르는 현대적인 증상이 있다. 영어의 'hurry'(성급함), 'worry'(근심), 'angry'(분노)의 끝글자 'y'를 따서 현대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 3Y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고 배타적이 된다. 진정한 나눔이 있을 리 없다. 겉으로는 많은 대화가 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나눔이 없는 허구적인 대화만이 오갈 뿐이다. 성경공부 인도자는 이 3Y를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의 언어를 소유할 책임이 있다. 닫혀지고 얼어붙은 성도들의 마음과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생명언어, 곧 기쁨의 언어를 들려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자는 성도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필요로 한다. 또한 검사의 입장을 택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입장이 요청된다. 인도자가 기쁨의 언어를 갖기 위해서는 참석자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좋은 면을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빛 되신 하나님을 향해 빛을 바라보는 자세로 임할 때 참석자들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찾는 주체는 참석자 자신이다. 똑같은 태양이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 빛이 될 수도 있고 그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인도자가 참석자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언어와 해석도 달라진다. (계속)

* 출처 - 온누리신문